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5. 08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신명기·여호수아
구역모임·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8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8

2015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전교인	3 전교인	4 17교구	5 2교구	6 12교구	7 6교구	8 전교인
9 전교인	10 전교인	11 13교구	12 3교구	13 14교구	14 9교구	15 전교인
16 전교인	17 전교인	18 15교구	19 5교구	20 16교구	21 8교구	22 전교인
23 전교인 제4차 학습·세례식	24 전교인	25 10교구	26 4교구	27 18교구	28 7교구	29 전교인
30 전교인	31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8월 23일

제4차 학습 · 세례식

8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과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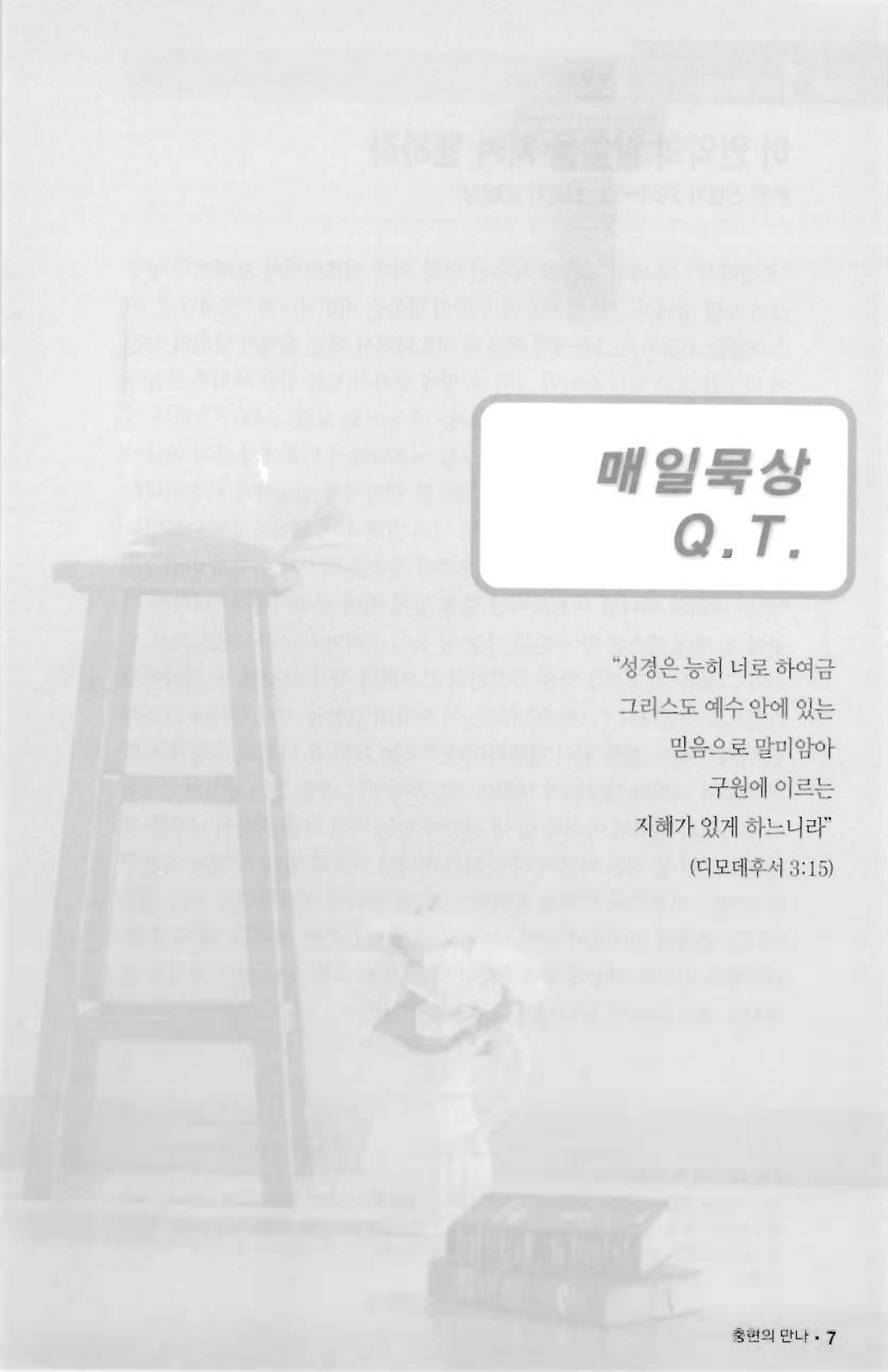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자해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⑪ 장로·안수집사·권사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⑫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⑬ 2015년 부흥회(9.9~11)가 주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충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본문 신명기 29:1~13 찬송가 333장

¹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²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화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³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⁴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⁵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⁶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⁷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⁸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⁹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¹⁰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리라 ¹¹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¹²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¹³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¹⁴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 히, 내가 2) 히, 나는

29:2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화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큰 이적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다.

본문 해설

신명기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1~8절).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9~13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맹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누구와 어떻게 나눌 계획입니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본문 신명기 29:14~29 찬송가 449장

¹⁴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¹⁵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¹⁶(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¹⁷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¹⁸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¹⁹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²⁰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위버리시되 ²¹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²²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²³그 온 땅이 유행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어요 ²⁴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²⁵그 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²⁶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²⁷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²⁸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²⁹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을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역하고 뒤흔어진 마음 때문에 다시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오히려 자신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19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20~23절).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9:18 "... 독초와 쑥의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수많은 독을 지닌 열매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우상숭배에 따른 온갖 악독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로 가득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본문 신명기 30:1~10 찬송가 529장

①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②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③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④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⑤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⑥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⑦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⑧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⑨-10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30:6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율법의 할례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의 표시였다면,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새 언약의 증표이다.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1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2절).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조차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오직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엡 4:22~24).

묵상 질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것을 언제 실천에 옮길 것입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본문 신명기 30:11~20 찬송가 200장

¹¹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¹²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¹³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¹⁴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¹⁵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¹⁶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¹⁷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¹⁸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¹⁹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²⁰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1) 그것이니

30:19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증언을 바꾸는 인간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그들 앞에 증인으로 두셨다.

본문 해설

하나님의 말씀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명에는 쉽고 가볍습니다(마 11:30).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14절).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것을 입술과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묵상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 신명기 31:1~8 찬송가 546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백이십 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1:2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모세가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본문 해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요단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시 23:1 마 1:23).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본문 신명기 31:9~19 찬송가 267장

⁹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¹⁰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때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¹¹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¹²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¹³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¹⁴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¹⁵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¹⁶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¹⁷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¹⁸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¹⁹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31:9 “이 율법을 써서 ...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에는 제사에 필요한 의식법과 생활에 필요한 도덕법이 들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영역(제사와 삶)을 각각 주관하는 지도자들에게 율법이 전달했다.

본문 해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2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신들이 누릴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습성이 새 땅에 들어가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모세가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자녀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계획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본문 신명기 31:20~30 찬송가 204장

20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23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모세가 여호와와 언약케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케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28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30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1:29 “내가 알거니와 ...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 모세는 그 자신이 그들에 대해서 보았던 것 때문에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 해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렸 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23절).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 무리하면서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궤 곁에 보관하게 했습니다(26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완악함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것이 더욱 심해질 것을 알았기에, 이 율법책을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27~30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완악한 백성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 질문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29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과 매 순간 쉬지 않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구별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본문 신명기 32:1~14 찬송가 391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이다”^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㉒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이다^㉓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 우시고 바르시도다^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흙이 있고 뺄어진 세대로다^㉕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㉖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㉗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㉘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㉙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㉚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㉛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㉜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굴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㉝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밭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327 “옛날을 기억하라 …”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본문 해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하여 생명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며 상황, 환경, 여건에 따라 요동치면서 변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뿐 아니라,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연단하듯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심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여수론이 기름지매 발로 찢도다

본문 신명기 32:15~29 찬송가 423장

¹⁵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매 발로 찢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운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¹⁶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¹⁷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¹⁸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¹⁹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²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²¹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²²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²³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²⁴ 그들이 주리므로 쇠약하며 불 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²⁵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젓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²⁶ 내가 그들을 흠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²⁷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²⁸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²⁹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32:17 “... 귀신들에게 ...” 이 말에 대한 히브리어는 시편 106:37과 여기에서만 나타난다. 여기서는 거짓 신을 의미하며 보호의 신(우상)을 뜻하는 말과 연관이 있다.

본문 해설

여수론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15절). 하지만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18절), 그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얼굴을 숨겨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0~24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계획을 변경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적군인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착각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27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지, 결코 그들의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시고 그 뜻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을 배신한 여수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본문 신명기 32:30~44 찬송가 337장

³³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³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³⁵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발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³⁶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³⁷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³⁸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³⁹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⁴⁰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⁴¹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⁴²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⁴³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⁴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⁴⁵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⁴⁶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⁴⁷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⁴⁸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1) 히, 또는 징벌한

32:30 “그들의 반석이 …”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고, 32:31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섬기는 신을 가리킨다.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방 민족에게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벌과 동일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32~33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끝나면 도구로 사용하셨던 원수의 세력을 벌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36절).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적군들을 징벌하시고, 세상 나라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도록 하십니다(43절). 여기에는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원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본문 신명기 32:45~52 찬송가 217장

⁽⁴⁵⁾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⁴⁶⁾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⁴⁷⁾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⁴⁸⁾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⁴⁹⁾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⁵⁰⁾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⁵¹⁾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 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⁵²⁾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1) 히, 백성

32:47 “... 너희의 생명이니 ...”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본문 해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45~46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47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패는 율법의 준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권면한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48절). 그는 느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머지않아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서,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어쩌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트리바 사건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큼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비록 모세에게는 냉혹한 현실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위해서는 큰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신다고 할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

본문 신명기 33:1~12 찬송가 382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아굽의 총회의 기업이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이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뎁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주의 법도를 아굽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1) 불가타 역과 몇 사본에는 “물타는 율레

33:8 “... 주의 둠뎁과 우림이 ...” 둠뎁과 우림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었다. 제사장은 둠뎁과 우림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판결을 얻어야 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본문 해설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 세일 산, 바란 산에서 오신다고 전합니다(2절). 이 산들은 모두 가나안을 기준으로 남쪽 광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산들을 보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동시에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찬양합니다(4절).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지파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고(6절), 유다 지파는 전쟁의 선봉에 서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실 것이며(7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8~11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축복합니다(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진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은사를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본문 신명기 33:13~29 찬송가 384장

¹³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¹⁴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¹⁵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¹⁶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¹⁷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¹⁸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¹⁹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잇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²⁰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²¹갯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갯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갯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²²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와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²³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²⁴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와 복이 가득한 납달리이여 너는 ²⁵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²⁶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²⁷네 문지방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²⁸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²⁹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³⁰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³¹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본문 해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은 가나안의 중심에 위치한 매우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와 함께 군사적 능력을 가질 것이며(13~17절), 스불론과 잇사갈 지파는 바다에서의 무역을(18~19절), 갓 지파는 군사적인 축복을(20~21절), 단 지파는 장래에 큰 위엄을 떨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22절).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의 풍요를(23절), 아셀 지파는 풍요와 안전을(24~25절) 축복받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계셨고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어 적들을 물리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26~28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을 그 어떤 민족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29절)?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 귀한 2) 바다 쪽

33:13 “...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본문은 지하수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어로는 마치 거대한 동물이 뛰어오르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호와와 종

본문 신명기 34:1~12 찬송가 438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겟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34:5 “... 여호와와 종 ...” 은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도록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 특별한 호칭이다.

본문 해설

노래를 마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느보 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 요단 강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그가 40년 동안 바랐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는 북쪽 지역부터(1절) 시작해 북서쪽 지역(2절)을 거쳐 남동쪽 지역(3절)을 바라보며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임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합니다(4절).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5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묻힌 묘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모세를 받들어 숭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조상들의 영혼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모세의 경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큰 권능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11~12절).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확실한 인도와 보호, 그리고 축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묵상 질문

모세의 죽음은 당신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당신의 비문(碑文)에 기록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 여호수아 1:1~9 찬송가 347장

¹²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³“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¹⁴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¹⁵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¹⁶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¹⁷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¹⁸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¹⁹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²⁰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2 “... 이 요단을 건너 ...”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 물은 폭이 30m가 되지 못하지만, 우기 때가 되면 폭이 1.6km에 이르는 넓은 강이 된다(수 3:15).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갈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2절). 이것은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에는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을 세 차례씩이나 하십니다(6, 7, 9절).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과 모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복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여정과 난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것인데, 다만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했습니다(5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7절).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떠한 상황을 겪었습니까?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본문 여호수아 1:10~18 찬송가 321장

¹⁰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¹¹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¹²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¹³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¹⁴너희의 처자와 가족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¹⁵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¹⁶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¹⁷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¹⁸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1:10 “...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 이들은 재판(민 11:16~17)과 민병대 소집(신 20:5, 8~9)과 전쟁 준비 감독(수 1:10~11)과 공공 업무 감독(수 8:33)에도 관여를 했다.

본문 해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을 사할 안에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합니다(10~11절). 그리고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맨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12~15절).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관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마치고 안식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돌아가서 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동체와 떨어진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은 이미 약속된 땅을 차지하였노라고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 동역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하나 됨을 구별하지 못하고 감정을 앞세워 싸움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 질문

참된 안식, 즉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적용 질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신이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서 행해야 할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본문 여호수아 2:1~14 찬송가 370장

“¹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²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³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⁴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⁵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⁶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⁷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⁸또 그들이 늡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⁹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¹⁰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¹¹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¹²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¹³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¹⁴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본문 해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간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군사들을 피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한 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습니다(4~7절). 이 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예표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9~10절).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신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 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할 지혜와 섭리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1 “... 첫담에서 ...” 첫담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이다. 히브리어로 첫담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킨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본문 여호수아 2:15~24 찬송가 408장

¹⁵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¹⁶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¹⁷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¹⁸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 에 모으라 ¹⁹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 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²⁰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²¹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²²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²³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²⁴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하더라

2:15 “...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 후기 청동기 시대의 여리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이중 성벽 사이의 빈 공간에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이 발견된다. 아마 라합도 성벽 안의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문 해설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성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밧줄을 타고 성벽 아래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요긴하게 쓰인 줄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18절). 라합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정탐꾼들은 라합 가족에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탈출시키는 데 사용한 붉은 줄을 창에 매어 놓고 가족과 함께 집안에 머물면 여리고 함락 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18~19절). 여기서 이 붉은 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행동입니다. 정탐꾼을 고발하면 그녀는 많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더욱더 번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합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그녀와 가족들은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선택의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믿음으로 결단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언제 실행할 계획입니까?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본문 여호수아 3:1~8 찬송가 354장

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불어 씻음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②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③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④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⑤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⑥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⑦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⑧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⑨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 히, 암마

3:4 “... 거리가 이천 규빗쯤 ...”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표시이다.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간격을 유지해야 했다. 이천 규빗은 약 1km 정도의 거리이다.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듯,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이천 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천 규빗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케 하시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요단을 바라보며 곧 좌절하고 실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실망은 결국 영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요단을 건너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물질이나 지식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너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영적인 요단 강은 무엇이며,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본문 여호수아 3:9~17 찬송가 435장

⁹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¹⁰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¹¹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¹²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¹³온 땅의 주 여호와와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¹⁴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¹⁵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¹⁶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¹⁷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3:15 “... 곡식 거두는 시기 ...” 이 시기에 요단에는 봄비가 내리고 헤르몬 산의 눈이 녹아 강으로 흘러 오기 때문에 물이 강 언덕에 넘친다.

본문 해설

요단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 말했습니다(9~10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에 들어가자 흐르던 물이 멈추도록 하셨습니다(16절). 이에 모든 백성은 물의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언약궤를 지나 요단을 건넜습니다. 백성이 강을 빠져나온 후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을 나오자 그제서야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에 머물며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요단 강과 같은 어려움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본문 여호수아 4:1~14 찬송가 543장

㉑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㉒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㉓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㉔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㉕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㉖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㉗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㉘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㉙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㉚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넌으며 ㉛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와 함께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넌으며 ㉜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㉝무장한 사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㉞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본문 해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한복판에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10절).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강물을 멈춰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급류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할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절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14절).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요단의 중앙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습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 그 일을 실행할 계획입니까?

49 “... 돌 열물을 세웠더니 ...” 길갈 ‘원’이라는 뜻의 돌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것은 후손들이 이를 상기하도록 특정한 장소에 세워졌다. 길갈이라는 이름에서 이 돌들이 원을 이루고 있는 형태였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본문 여호수아 4:15~24 찬송가 430장

¹⁵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⁶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¹⁷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¹⁸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¹⁹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 치매 ²⁰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²¹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²²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²³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²⁴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4:19 “첫째 달 십일에 ...”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을 가리킨다(출 12:3). 길가는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 강을 건넌 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기념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서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일상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은 궁극적으로 실물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다(24절).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자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적용 질문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오늘,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본문 여호수아 5:1~9 찬송가 426장

¹⁾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²⁾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³⁾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⁴⁾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⁵⁾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⁶⁾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⁷⁾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⁸⁾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 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⁹⁾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¹⁰⁾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¹¹⁾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¹²⁾길갈이라 하느니라

1) 그들 2) 기브앗 하이랄롯 3) 굴러간다

53 “... 할례 산에서 ...” 할례 산이란 히브리어로 ‘포피의 언덕’이란 의미이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본문 해설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가나안의 군대들이 있고, 뒤에는 범람하는 강이 있어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대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앗 하아랄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의 할례 의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낼 예정입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본문 여호수아 5:10~15 찬송가 144장

¹⁰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¹¹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볍은 곡식을 먹었더라 ¹²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¹³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¹⁴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¹⁵여호와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5:14 “...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 유월절이 지나자 칼을 빼어 든 천사가 전쟁을 시작한다. 천사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6장의 내용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문 해설

이스라엘은 요단 강을 건넌 지 4일째 되던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10절). 할례를 행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할례 의식을 통해 새롭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자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계기로 그 땅의 소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7일째 되던 날에 가나안의 젖과 꿀을 맛본 것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지난 40년간 그들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12절). 이것은 40년 간의 광야 생활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멈추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행한 하나님의 은총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약속 안에 거하게 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유월절 이후에 만나가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지난주간 당신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겠습니까?

그 성을 돌되

본문 여호수아 6:1~14 찬송가 382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²⁾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³⁾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⁴⁾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⁵⁾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⁶⁾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⁷⁾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⁸⁾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⁹⁾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¹⁰⁾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¹¹⁾여호와께 앞에서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¹²⁾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¹³⁾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¹⁴⁾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본문 해설

여리고 성의 함락은 구원의 실제적인 예표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성 둘레가 600m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약 20~30분 정도면 마칠 수 있었던 비교적 쉬운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불순종으로 얼룩졌던 광야 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들의 순종입니다. 7일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매일 성벽을 돌면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순종했습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첫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한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구원의 증표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 성의 함락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순종할 계획입니까?

64 “... 양각 나팔을 잡고 ...” 양각 나팔은 군사적 목적과 종교적 목적으로 쓰였다. 전쟁 시 작전을 내리는 신호의 기능과 절기의 축제의 시작을 알릴 때에도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결국 승리와 축제를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성을 주셨느니라

본문 여호수아 6:15~27 찬송가 521장

¹⁵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다 ¹⁶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¹⁷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¹⁸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¹⁹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²⁰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²¹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²²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²³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²⁴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²⁵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²⁶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²⁷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7일째 되던 날, 동이 트자마자 성 주위를 일곱 바퀴 돌았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취한 제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아야 했습니다(19, 24절). 하지만 지난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만은 예외였습니다(17절).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히 11:31). 기생인 그녀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정탐꾼들이 비천한 그 여인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낮아도,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가난한 사람인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6:17 “...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 바친 물건, 바친 것, 바침은 ‘진멸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본문 여호수아 7:1~15 찬송가 322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뵈엘 동쪽 뵈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었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뵈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뵈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뵈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본문 해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뒤 성 안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집에 드렸어야 함에도 아간은 노획물의 일부를 자기 집에 감추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아간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습니다(1절).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로 취급을 받은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聖戰)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명을 어겼고, 그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결과는 곧 아이 성 전투의 패배로 드러났습니다(12절).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이 성에서의 참패는 이스라엘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 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주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지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오늘 당신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72 “...벤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벤아벤의 뜻은 ‘우상의 집’이며, ‘아이’는 히브리어로 ‘폐허’란 의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본문 여호수아 7:16~26 찬송가280장

¹⁶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뿔혔고 ¹⁷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뿔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뿔혔고 ¹⁸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뿔혔더라 ¹⁹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²⁰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²¹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²²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²³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²⁴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²⁵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²⁶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²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1) 히, 양과 염소의 때 2) 괴로움

7:26 "...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구원의 예언서에서는 회복과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며 이 저주의 장소가 새로운 희망으로 장소로 바뀐다(호 2:15 사 65:10 참조).

본문 해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모든 백성을 모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으뜸가는 유다 지파가 제비 뽑히고, 유다 지파 중 세라의 가문, 세라의 가문 중 삽디 집안, 삽디 집안 중 아간이 지명되었습니다(16~18절). 아간은 전리품 중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했다고 여호수아에게 순순히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에서 그가 취한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이 보게 한 뒤 아간과 그의 가족,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아간은 반항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렀고, 백성들은 그들의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고난/괴로운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26절). 이와 같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진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진노를 거두셨습니다(26절).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값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오용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묵상 질문

아간의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본문 여호수아 8:1~14 찬송가 30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㉒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㉓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㉕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㉖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㉗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㉘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벰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㉙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㉚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㉛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벰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㉜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㉝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8:14 “... 아라바 앞에 이르러 ...” 본문에 나타난 ‘아라바’는 3:16에 기록된 아라바와는 다른 지역으로서 팔레스틴 지형에서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본문 해설

아간을 치형하여 공동체를 정결케 한 이스라엘은 참패했던 아이 성을 공략에 다시 한 번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1절)라고 위로하신 뒤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대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군사 3만 명을 선발하여 아이 성 뒤쪽에 잠복시키고, 전쟁을 하는 척하며 아이 성 사람들을 밖으로 유인한 뒤 성을 불태웠습니다(3~9절). 여호수아의 작전은 아이 성 사람들의 방심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이 싸우다 도망하면 또 다시 자신들이 승리한 줄로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쫓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순간을 역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략을 펼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을 명령하셨고(마 28:18~20), 동시에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본문 여호수아 8:15~29 찬송가 356장

¹⁵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깃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¹⁶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¹⁷아이와 벵엘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¹⁸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라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라키니 ¹⁹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²⁰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²¹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죽이고 ²²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²³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 왔더라 ²⁴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²⁵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²⁶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²⁷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²⁸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²⁹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본문 해설

아이 성 사람들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는 이스라엘에게 속아 성문도 열어놓고 골짜기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라고 명령하시며 그에게 아이 성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8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순간 복병이 일어나 아이 성 사람들은 모두 진멸당했습니다(22~24절). 여호수아는 아이 성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26절). 이 장면은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출 17:8~16).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에 이를 때까지 이를 위해 기도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입니다.

아이 성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진멸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이 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어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손을 들고 영적 전투에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왜 아이 성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고 모두 진멸하셨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 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다 진멸하여 싸우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8:29 "...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 이스라엘은 교수형으로 사람을 처형하지 않았다. 범죄자의 시체를 나무에 다는 행위는 그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알리고,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나무에 달린 자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본문 여호수아 8:30~35 찬송가 206장

³⁰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³¹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³²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³³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와 언약케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³⁴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³⁵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8:33 “...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 본문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모두 율법 낭독 의식에 동일하게 동참해야 했음을 말하고 있다.

본문 해설

여리고 성과 아이 성 전투를 마친 여호수아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앞에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실행한 것이었습니다(신 11:29).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과 이방인까지 축복의 산 그리심 산과 저주의 산 에발 산 앞에 절반씩 세웠습니다(33절). 그리고 그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34절). 이로 인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그들과 동행하는 거류민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35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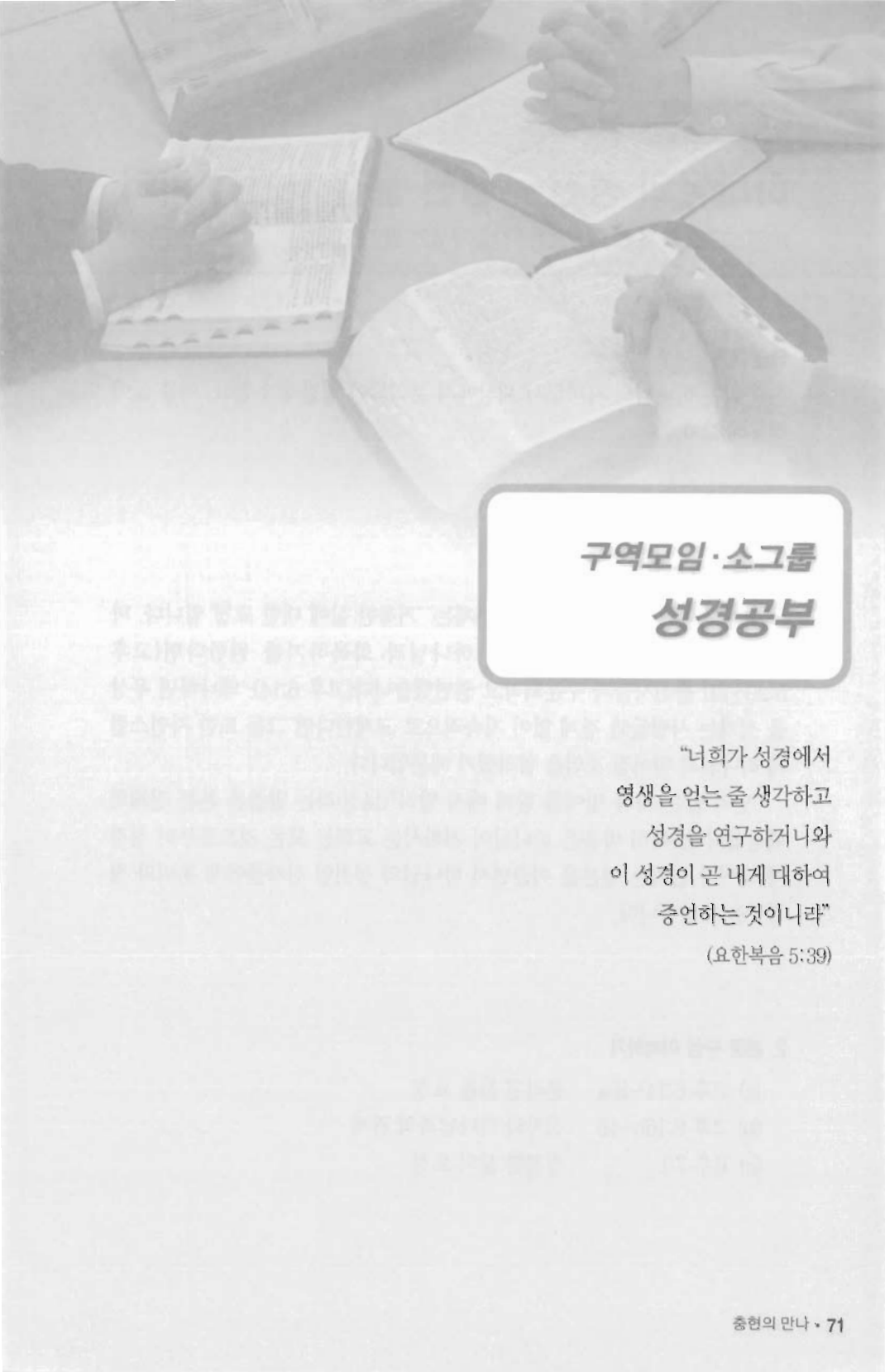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여리고 성처럼, 아이 성처럼 진멸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축복의 말씀만 골라내는 것이 아닌 저주의 말씀의 두려움을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여호수아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장로, 관리, 재판장들, 본토인, 이방인, 여자들, 아이)에게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였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합니까?



구역모임·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8월 첫째 주 1과

하나님의 성전 - 성전 청결 사건을 기억

본문 고린도후서 6:14~7:1 찬송가 426장, 420장

학습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정결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6:14~7:1의 전체 주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고후 5:20~21) 불신자들과 구분되라고 권면했습니다(고후 6:14).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경계 없이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면 그들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것임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14절)라는 말씀은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들에게 분리와 정결함을 요청합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 | |
|-----------------|--------------|
| (a) 고후 6:14~16a | 분리된 삶을 요청 |
| (b) 고후 6:16b~18 |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
| (c) 고후 7:1 | 정결한 삶의 요청 |

3. 본문 연구하기

(a) 분리된 삶을 요청(고후 6:14~16a)

바울은 신자들에게 불신자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사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각각 대조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행하는 제사에는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16절).

Q. 신자는 누구를 경계해야 합니까?(14절)

(b)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고후 6:16b~18)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강조한 뒤에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특히 바울은 구약성경의 레위기 26:11~12과 에스겔 37:26~27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16절)라고 말하며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52:11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17절)라고 말하며 고린도 내의 불신자들 속에서 신자들이 분리될 것을 권면합니다.

Q. 신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16절)

(c) 정결한 삶을 요청(고후 7:1)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는 스스로가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경계하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그 거룩함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마 21:12~17 막 11:15~19 눅 19:45~48).

Q. 신자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1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이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를 버리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방해(경조사, 사업, 시험 등)를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8월 둘째 주 2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본문 고린도후서 7:2~7 찬송가 220장, 221장

학습 목표

우리는 화해와 위로를 실천해야 할 자이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7:2~7의 전체 주제는 '화해와 위로의 호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고 촉구(고후 6:14~7:1)한 뒤에,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지난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내의 상황에 대해 듣고서 그가 경험한 큰 안도에 관해 상세히 말합니다. 그는 마침내 이루어진 디도와 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 | |
|--------------|----------|
| (a) 고후 7:2~4 | 교인들과의 화해 |
| (b) 고후 7:5~7 | 하나님의 위로 |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교인들과의 화해(고후 7:2~4)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한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신자들을 금전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변호하면서, '화해'를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살 것이며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에 대해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고후 1:14; 7:14).

Q. 바울은 무엇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라고 권면합니까?(2절)

(b)하나님의 위로(고후 7:5~7)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근황과 영적 상황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디도와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와의 만남 자체도 그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디도가 가져 온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과 그들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의 사건에 대해 뉘우치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Q. 바울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합니까?(6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에게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화해할 것입니까?

Q. 당신이 오늘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해 줄 것입니까?

8월 셋째 주 3과

유익한 근심

본문 고린도후서 7:8~16 찬송가 252장, 254장

학습 목표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는 자들이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7:8~16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후 2:1~4, 13)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잠시 동안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8절), 그 근심은 곧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 | |
|-----------------|---------------|
| (a) 고후 7:8~13a | 고린도 교인을 향한 근심 |
| (b) 고후 7:13b~16 | 고린도 교인에 대한 안심 |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고린도 교인을 향한 근심(고후 7:8~13a)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편지의 어조와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문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는 디도의 보고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Q. 바울은 편지를 보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8절)

(b) 고린도 교인에 대한 안심(고후 7:13b~16)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결과를 주저 없이 자랑합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듯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수많은 고통과 근심을 안겨 주었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영적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참 목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Q.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은 어떠합니까?(16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이 어떠한 일로 인해 근심하고 있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Q. 당신을 통해 격려받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격려하시겠습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고후 7:12)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8월 넷째 주 4과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본문 고린도후서 8:1~6 찬송가 219장, 221장

학습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이다. 삶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8:1~6의 전체 주제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향한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헌금을 내는 일에 참여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신적으로 헌금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반응임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8:1~5 관대했던 마게도냐 교회
- (b) 고후 8:6 인색했던 고린도 교회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회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관대했던 마게도냐 교회(고후 8:1~5)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선교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베풀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었습니다.

Q.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8절)

(b)인색했던 고린도 교회(고후 8:6)

마게도냐 교인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현재 헌금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관대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Q.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어떠한 일을 가리킵니까?(6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이웃의 어려움 앞에서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후 8:2)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5년 8월

Copyright ©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이병규 김용운 김완자 김숙진 이수경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